

드로잉 유작 40여점 모두 원작들 만나볼까

전남 보성 출신의 추상예술 선구자 양수아 화백(梁秀雅, 1920~1972)의 ‘독일 초대전’(2023.10.14~29 뒤셀도르프 PART 2 갤러리)이 열린 게 2023년 10월이었다.

잊힐만하면 들려오는 것이 양 화백의 전시 소식이었다. 그렇게 들려온 전시 소식이 반가운 것은 그가 남도화단에 끼친 영향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6·25전쟁 등 근현대사 굴곡의 시간을 통과해오며 격동기 추상미술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확고하게 구축한 공로가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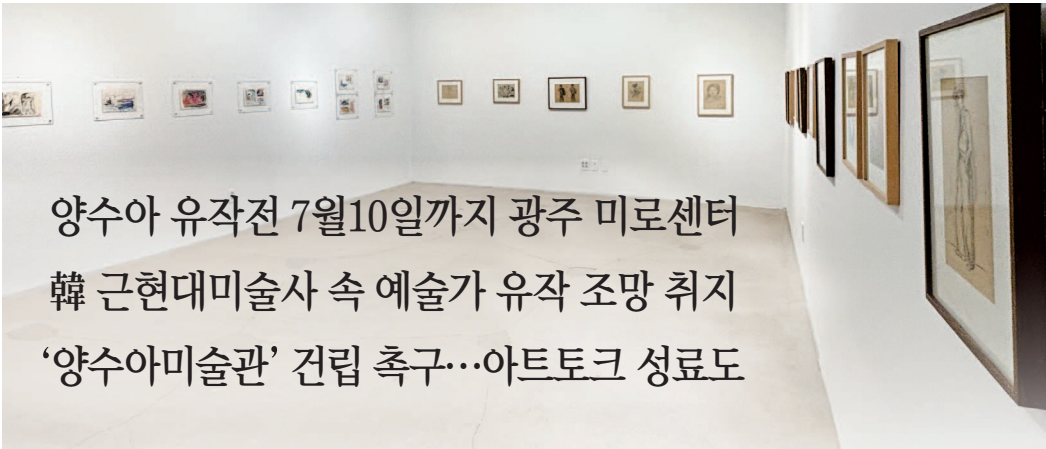
유년기에 삽화가를 꿈꾼 뒤 소학교 시절 시모노세키에 유학을 시작으로 가와바타 동경의 미술학원에 재학했을 정도로 미술이 전부였던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다.

목포와 광주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미술교육자와 비평가의 삶을 살았으며 애플프렐이나 추상표현주의 등 새로운 예술사조를 접했다. 그후 서구의 미학적 형식을 매개로 자유롭고 새로운 조형언어를 구사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해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양수아 화백의 전시 소식이 들려왔다. 일종의 유작전을 지향한 전시는 2025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인 ‘궁동1987’(감독 남궁윤)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마련돼 지난 21일 개막. 오는 7월10일까지 광주 미로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드로잉으로 만나는 무제와 행위’라는 타이틀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남궁윤 감독의 기획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 속 한 예술가의 유작을 되짚는다. 전시에는 작가의 드로잉 유작 40여점을 중심으로 전시 포스터, 생전 작업 도구 등 주요 아카이브 자료가 함께 공개되고 있다.

추상화와 크레용화, 드로잉, 자화상 등 추상표현 서양화가 망라됐으며 드로잉 유작 40여 점은 모두 원작들이어서 주목된다. 여기서 기억의 회로를 복



양수아 유작전이 오는 7월10일까지 광주 미로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김허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이 지난 21일 작품설명에 나선 아트 토크와 전시 관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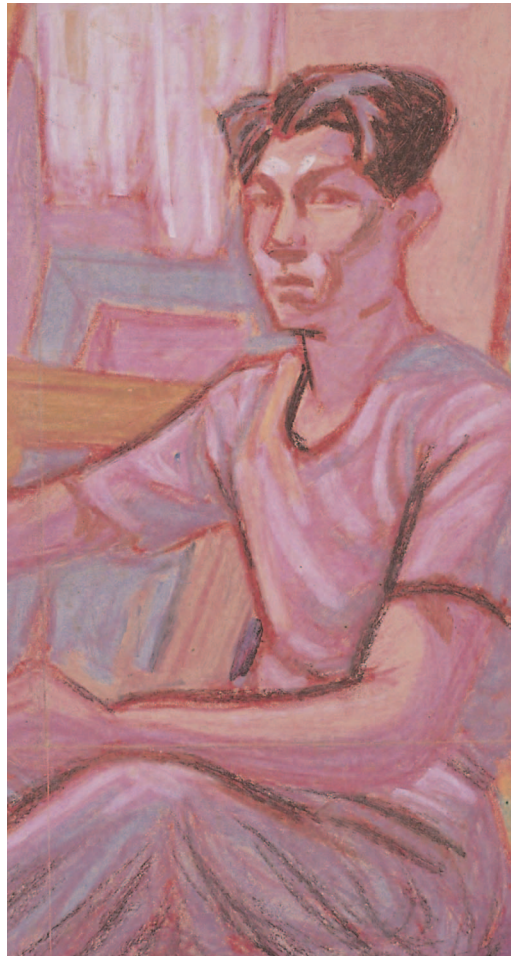
원하는 감각적이고 사유적인 공간으로 전시장이 꾸며졌다는 설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양수아 화백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1세대 서양화가이자 드로잉과 회화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의 미술과 사회를 묵묵히 관통한 예술가로, 작품에 제목을 남기지 않았지만, 선 하나하나에 삶의 흔적과 시대의 고요한 증언을 남겼다는 평이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단지 과거를 기리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 예술의 미래로 이어지는 작은 시작이 되는 동시에 양수아 작가의 삶과 예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양수아미술관’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촉발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1회 아트토크도 마련돼 지난 21일 성황리 진행됐다. 김허경 센터장(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한국 근현대미술사 속 추상회화와 애플프렐, 그리고 양수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센터장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양수아 작가의 드로잉 및 추상 회화가 지닌 예술적 매력과 한국 근현대미술사 속에서의 위치가 새롭게 조명됐고, 작가의 아들이자 나인갤러리 관장인 양승찬씨와의 대화로



양수아 본인이 그린 자화상

통해 작품에 담긴 사적인 기억과 삶의 층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남궁윤 감독은 이번 전시에 대해 “단지 유작을 나열한 회고전이 아니다. 예술의 거리라는 살아있는 도시공간 안에서,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그의 선(線)을 현재로 소환하는 예술 실천의 장”이라며 “양수아의 선은 단지 드로잉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이자 존재의 증언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 거리라는 살아 있는 문화현장에서 작가의 유작을 현재로 다시 불러내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왜 문항 호남인가’ 특집 마지막 순서 문예지 계간 ‘문학춘추’ 여름호 출간

1993년 창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 한 번의 결호없이 32년간 지령 130호를 넘기며 지역 문화의 한축을 견인해온 종합문예지인 계간 ‘문학춘추’ 여름호(통권제131호)가 발간됐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비롯해 연재 기획, 고 장정식 수필가 추모 등 각기 고유의 특징을 잘 나타낸 특집이 수록됐다.

문학과 인생 이야기에서는 김대현 한국문학회 회장과 회장 인터뷰를, 연재 기획에서는 ‘왜 문항 호남인가’의 마지막 순서가 각각 다뤄졌다.

김대현 한국문인협회 회장과 회장 인터뷰에서는 “고등학교 문예반 밖에 접려 있던 ‘다독, 다작, 다상량’이란 구호가 문학 인생의 출발점이었다”는 그의 문학과 무예, 인생을 아우르는 등 다채로운 여정을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다.

회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회고뱅크’와 ‘회고전라도서관’을 설립했던 그가 택전 7단을 포함해 총 20단의 무예 실례, 미국 체류 경험, 그리고 여성극단 ‘아리수별곡’과 전통무예 창작극 ‘백경아리랑’, ‘방자전’ 등의 연출 활동 및 인간과 관계를 통찰하는 회고의 본질과 함께 그의 다채로운 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 연재 기획 ‘왜 문항 호남인가’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춘배 주관이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주제의 제2부 ‘한국 현대문학을 이끄는 호남’이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의 기록제가 된 금남로 시위(1960. 3. 15. 오후 12:45) 등 역사의 전환점마다 호남이 중심에 있었음을 조명하고 있다. 민중문학의 핵심 인물인 김지하, 박노해, 김준태, 황지우, 오세영 등의 시인들과 한승원, 최명희,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등 소설가들의 작품 세계와 그 문학적 의미도 함께 조명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이경자 작 ‘해상군선도’

고은 색채와 수준높은 민화 소박미

광주대 호심미술관서 내달 2일까지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색채학(민화) 회원들과 서화 이경자 작가의 갤러리 회원들이 함께하는 ‘한지에 고은 빛’전이 지난 19일 개막. 오는 7월 2일까지 교내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인의 취향을 반영한 ‘책거리’, 차분하고 단아한 베이지톤의 ‘기명절지도’,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십장생도’와 ‘노안도’ 등 우리의 삶과 염원이 담긴 작품들이 출품돼 선보이고 있다.

이중 ‘수렵도’를 비롯해 ‘해상군선도’, ‘청룡’ 등 신비롭고 영험한 세계를 표현한 ‘신영모화’는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던 우리 조상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으며, 모란과 새, 나비, 꽃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도 함께 출품됐다.

특히 한지의 섬세한 결 위에 담긴 고은 색채 및 민화의 소박함이 어우러진 전통회화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된 민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장은 “조선 민화는 서민의 삶과 정서는 물론 당시 문화의 다양성이 담긴, 독특한 K-예술”이라며, “성인학습자들이 전시를 통해 수준높은 민화 작품 창출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소요유갤러리로 자리를 옮겨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예술가·창작자 역량 강화 ‘배움의 장’

요문화전당, ‘오픈런 ACC’ 내달 11~13일 문화창조원

뉴미디어 기술 매개·20여종 강연·워크숍·토크 등 다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배움의 장인 ‘오픈런(OpenLearn) ACC’를 7월 11~13일까지 문화창조원 창작자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오픈런 ACC’는 ACC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교육 행사로, 뉴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예술 창작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창작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기간 동안 인공지능(AI), 영상·이미지, 제작·설치 등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여종의 강연, 워크숍,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나눈다.

특히 참여자들은 동시대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력해 완성도를 높인다.

강연은 최승준 미디어 아티스트가 ‘생성형 AI



‘2023 예술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 탐구 워크숍’ 현장.

심’을 주제로 서막을 열고, 이어 자이언트시스템 최승호 실장, 서효정 미디어 아티스트, 디지털 아티스트이자 김치앤칩스 공동 창립자인 엘리엇 우즈, 김윤철 스튜디오의 박정연 디렉터가 각각 창작과 정과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전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도구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모션 캡처, 전자 회로 기반 ‘PCB’(Printed Circuit Board) 제작 등 다양한 기술을 실습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콘텐츠 제작

도구 ‘터치디자이너’(TouchDesigner),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블렌더’(Blender), 라이브 퍼포먼스 중심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에이블톤 라이브’(Ableton Live) 등을 활용한 ‘톨 맛보기’ 수업도 진행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실험적 라이브 공연이 열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은 생생한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워크숍과 토크 프로그램은 지원서 심사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강연, 토크, 워크숍, 퍼포먼스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여자가 확정된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상욱 전당장은 “오픈런 ACC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기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호국보훈의 달…‘기억과 희망’ 세대 잇는 하모니

광주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회 27일 요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광주시립합창단이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별기획연주회 ‘기억과 희망’을 27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친다.

이번 연주회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한국 근현대사의 호국보훈의 역사를 음악으로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다.

연주회는 광주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학생들과 오케스트라

카메라타전남이 함께 꾸민다. 피아니스트 박은식, 바리톤 공병우 그리고 광주시립합창단 차석 단원인 소프라노 김지나가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공연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으로 시작된다. 죽음을 평화로 받아들이는 작곡가의 시선이 담긴 이 곡은 고요하고 위엄 있는 선율로 순국선열에 대한 깊은 경의와 위로를 전한다.

이어지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합창 환상곡’(Choral Fantasy)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이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으로, 예술과 인류 정신의 승리를 장엄하게 노래한다.

후반부는 창작 한국합창곡인 ‘다시 피는 꽃’, ‘내 나라 내 겨레’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든 ‘아리랑’이 무대에 오른다.

한국인의 애환과 시대적 메시지를 담아낸 곡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기억’과 ‘희망’이라는 공연의 주제를 더욱 뚜렷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시민과 함께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꿈꾸는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예술을 통한 시대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은 7세 이상 가능하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